

일부 단과대 학과제 변경

오는 2004학년도 부터 시행 ... "지속적인 논의 통해 확대할 것"

교무처(처장=김무봉·국어국문학) 학사지원실이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부 단과대에 한해 학과별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집단위 변경안(가)을 발표했다.

변경된 모집단위는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정보통신공학과이며, 나머지 단과대는 기존과 동일한 모집단위 광역화로 선발한다. 정산대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경우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로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김무봉 교무처장은 "이번 안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지 않은 단과대도 점진적으로 학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학과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은 그동안 각 단과대가

전공교육의 부실 등을 이유로 학과제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4월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것이다.

또한 학교측은 일부 단과대가 학과제로 전환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단과대 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 중 △경쟁대학의 학부제 또는 광역화 모집 실시로 비인기학과의 지원을 저하 △이수학점이 120학점인 단과대의 경우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 연구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수련(경영학) 경영대학장은 "경영대 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는 학생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모집단위 변경안(가)

대학	계열	모집단위
문과	인문	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학과, 중어중문학과
이과	자연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생물학과
공과	자연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보산업	자연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 정보시스템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일(국교4) 학원 자주화투쟁위원장은 "앞으로 학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학교측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것"이

라고 말했다.

학교측과 총학생회는 오는 28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교과과정 개편 △학부제 폐지 △학점포기제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w@donggu.ac.kr

'특성화' 위한 구성원 합의 필요

6월 특성화 사업 지원 ... 중장기 계획 논의해야

지난달 교육개방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오는 6월 2003년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앞둔 본교는 신입 총장 취임 이후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의 첫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홍기삼 총장이 취임 초부터 본교를 '블로그생태학'의 총본산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논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본교가 지원할 분야는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 부문으로 특성화 실현가능성 △장기발전 계획과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학계·산업계의 발전동향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과 달리 신청과제를 기존·

변경·신규 과제로 분류해 새로운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의 평가는 기존의 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신청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 총장 취임으로 특성화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인 본교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원서 제출시한이 촉박해 신청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윤길 기획실사팀 과장은 "학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올해 지원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측은 전체 교·직원으로부터 추진과제를 희망하는 특성화 과제를 신청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 방침이다.

그동안 본교는 특성화를 위한 기존과 달리 신청과제를 기존·

교육부에 선정될만한 요건을 갖춘 과제를 제출하는 데 급급했다. 지난 97년 '블로그학을 축으로 한국학 연구 중심대학'을 표방했지만 영상정보 통신분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매년 지원 때마다 특정 부서에서 한 분야를 선택·지원하고 특성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논의 절차가 생략됐다. 이는 단과대마다 관련 분야가 특성화로 꼽히기를 바라는 '단과대 이기주의'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될 특성화 방안 논의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단과대가 개별적으로 발전안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단과대가 모여 합의를 통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if55@donggu.ac.kr

박물관, 개교 97주년 특별전

'궁중의제도' 등 미공개 작품 전시

개교 97주년 기념 특별전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이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발굴유물 및 불화, 청자불상 등 100여 점 이상이 전시된다.

또한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묘

사한 '궁중의제도'를 비롯해 △정조대왕 어필 파초도 △안중근 의사 유묵의 청화백자승주문호 등이 출품된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미공개된 국보·보물급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임금·단체협상 결렬

직원 9%, 학교 7%인상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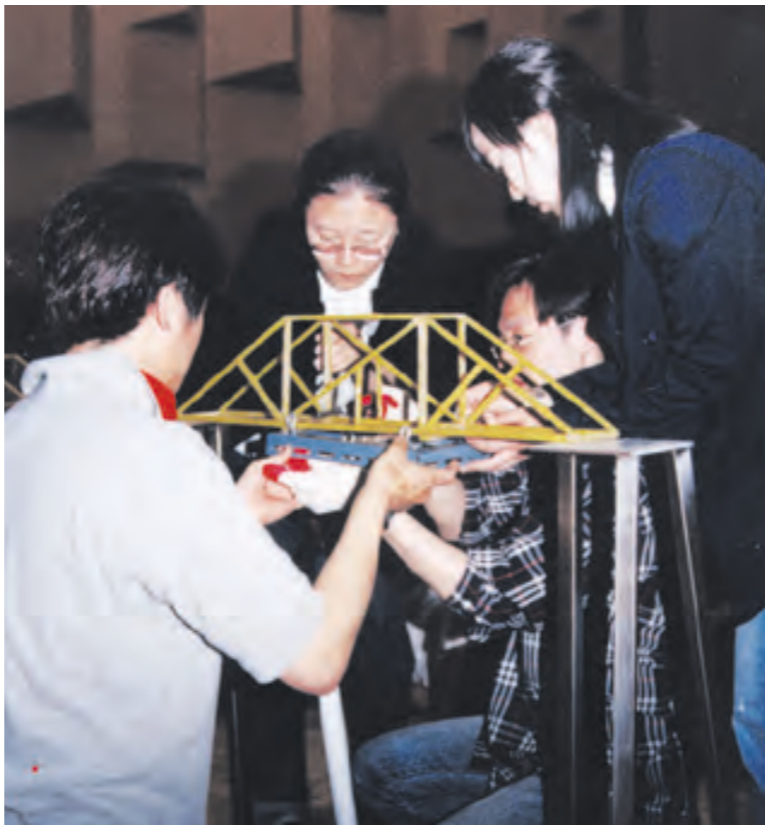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와 학교측의 임금·단체 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직원노조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의 9%인상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학교재정이 열악해 불가능하다"며 7%인상을 제시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기능직 직원 수당 신설 △총장선출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현재 직원노조는 임금·단체협약 3차 실무위원회를 학교측에 요구한 상태이다.



조심조심 ... '제 7회 스포카티 국수 다리 경연대회'가 지난 10일 본관 중앙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우승은 101Kg의 추를 매단 진경미, 하현학, 정승현(산업시스템공1) 조에게 돌아갔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ac.kr

5월정신 계승 주간

5.18 기념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 마련

5·18 광주민주화투쟁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초창강연·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총학생회 △사회화학과 학생회 △민중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18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의 발전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행사: '내가 겪은 5·18과 미국' 김중일 여성생 범대위 집행위원장
일시·장소: 15일 오후7시 J201

행사: 초청강연 '내가 겪은 이라크'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시·장소: 16일 오후7시 J201

행사: 광주 망월동 순례
일시: 17일

일 정

행사: 5·18주간 발족식, 설명회
일시·장소: 12일 오후6시 J501

행사: '꽃잎' 상영
일시·장소: 12일 오후8시 불상양

행사: '피아니스트' 상영
일시·장소: 13일 오후8시 불상양

행사: 5·18토론회
일시·장소: 14일 오후7시 J501

노년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매년 교환학생 5명 선발

본교가 미국 노년대와 지난달 16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본교는 △교수·연구원·학생 교류 △공동연구, 공동심포지엄 및 학술회의의 공동주최 △학술정보 및 자료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5명의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연구비 가지급금제도 시행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

외부연구비 지급 전 학교에서 미리 지원하는 연구비 가지급금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교 교수가 책임자로 연구공모사업에 선정됐거나 계약체결 완료 연구과제 중 교내로 연구비가 입금될 예정인 것이다. 가지급금은 계약금액의 20% 미만으로 2천만원 이하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연구비입금이 지연돼 연구가 늦게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캠 학점교류 신청 오는 14일부터 3일간

2003학년도 2학기 경주 캠퍼스와 의 학점교류 신청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각 교학과에서 진행된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교류는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평균 15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각 교학과에서 배우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업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일대대학원 원서접수 마감

석사과정 경쟁률 1.13:1

후기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결과 석사과정은 1.13:1, 박사과정이 3.5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석사과정이 169명 모집에 191명, 박사과정이 48명 모집에 170명이 지원했다.

보리소

'당신도 인생역전 할 수 있습니다?' 허탈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광풍처럼 몰아닥친 로또복권의 광고 문구이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난도, 전쟁의 위험도 로또열풍으로 희석되고, 천문학적인 당첨금은 현실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다들 한방에 대박을 꿈꾸니,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비 떼가 따로 있으랴 싶다.

거품경제로 국민경제가 망들렸는데, 이제는 대박을 꿈꾸는 로또열풍에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일장춘몽 한바탕의 꿈속이리는데, 그 꿈속에서 또

꿈속을 헤매면 어떤 게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허황된 꿈에 의존할 정도로 현실의 삶이 고달파지고 정신이 멍해진 것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과거를 좇지 마라. 미래도 같구하지도 말라. 무릇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일들은 각각 그 자리에서 관찰해 흥들림이 없게 하라. 바야흐로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생활화하신 분으로

는 백장선사가 있다. 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신조는 노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행인으로 또 순간순간에 삶에 충실한 생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불가(佛家)에서는 길몽이라도 꾸달리지 말고, 흥몽이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경책하고 있다.

고단한 삶에 요행이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오늘, 바로 지금 이순간만이 우리가 책임지고 충실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매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애써 걱정

하지 않아도 보장된다. 단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뿐이다. 허황된 꿈에 쫓겨 현실을 건너뛰어 미래까지 담보를 내주는 미련한 이는 되지 말도록 하자.

미래에 대한 이상을 키우는 것이 고단한 현실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지만 지나친 환상은 현실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니, 중도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소한 미래를 담보로 하는 도박만은 하지 말자.

김소운
불교문화연구원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과·학부 학생회실 꾸미기 대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cafe.daum.net/dgupeacectival), 총학생회실 방문 접수

▲신청마감 : 2003년 5월 15일

▲심사위원 : 동대신문사, 총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

▲심사기준 : 학과특성 살리기와 효율적 공간활용

▲시상 및 상품 : 2003년 5월 22일 대동제 폐막식 때 시상

1등 디지털 카메라 / 2등 CD카세트 / 3등 기타

노른자가 두 개? 영양 만점 행사!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5면 다시 '읽는' 5.18 광주항쟁

오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23주년을 맞는다. 이에 광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문화적 기록과 경향을 살펴본다.

4면 새봄방송 들어다 보기

정치 수배자들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들을 만나본다.

8면 꿈풀이 문화

우리나라의 독특한 꿈풀이 문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구 도서관 공간배치 확정

법대이전·열람실 확충 등 ... 공간문제 해결 기대

공간재배치위원회(위원장=이영환·경제학)가 지난 6일 구 도서관 공간배치를 확정하고 여름방학에 공사를 시작한다.

확정된 공간은 △1층=법대 △2층=1개 단과대와 관련대학원 △3·4층=교수연구실이며, 기존 서고도 서 자리에 약 340석의 열람실을 설치해 4층에 걸쳐 총 1천 5백석의 열람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구도서관 리모델링은 그동안 △증축 △현 건물의 리모델링 △내부 수리를 통한 용도변경의 세 가지 방법이 논의됐으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백경선 시설관리팀장은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기보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층의 열람실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교수회관과 교수연구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간배치로 학내 공간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열람실의 경우 공사 후 학내 열람석이 총 3천 5백여 석으로 4인당 1석을 확보하게 되며, 교수연구실도 50~60개 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법대가 이전함에 따라 동국대 공간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오는 9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방학 중 공사를 시작해 내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는 "이번 공간배치는 학생들과 합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논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서고자리에 열람실이 생길 경우 지난해 합의한 법대 공간 일부 확보 불가능 △공용 컴퓨터와 휴게실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생회는 지난해 학교측과 △1층=법대 △2·3층=열람실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이번 주 안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후 확정되지 않은 2층에 대한 면담을 학교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이버강의 활성화 방안

전문인력 보충·정기강좌 개설 필요

교수 참여저조 ... 학생수요 비해 강좌개설 부족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사이버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설되는 강좌 수가 부족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교 사이버강의는 지난 98년부터 시행돼 매학기 한 강좌당 평균 200여명이 수강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기 9개 강좌가 개설돼 1천6백여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개설되는 강좌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연경(수사) 양은 "이과대의 경우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교양이나 자유선택 과목만 들을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설강좌가 부족한 이유로는 교수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다. 현재 사이버강의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설되고 있으나 강의내용과 목차를 작성하는 콘텐츠개발에 오랜시간이 소요돼 참여가 저조하다. 이와 관련해 김영민(영어영문학) 교수는 "사이버강의를 할 경우 한 과목의 콘텐츠를

구성하려면 오프라인에서 두 과목 이상을 준비해야 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 섣뜻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교수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강의의 경우 사이버상을 통한 질의·응답이 중요하지만 수강생이 많고 교수들의 시간 부족 등으로 대부분 조교가 대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개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보충해 교수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본교는 콘텐츠개발 전문인력이 없어 조교와 교수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강좌를 개설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훈(교육학) 가상대학장은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콘텐츠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된 강의의 경우 개발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본교는 영상미디어분야가 특성화돼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유사분야와의 연계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이버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한전부터

느림의 미학

○...올해 학교측과 학생회와의 중앙요구안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몇몇 단과대가 단과대별 요구안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아 중앙요구안 제출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이라.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요구안 제출시한을 지켜 학교와의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학생들의 복지 요구안 제출,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24시 상영관

○...요즘 학생회관 로비의 텔레비전은 밤을 새며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몇몇 학생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한 후 전원을 끄지 않고 자리를 떠 계속 켜져있기 때문이라고.

시청하는 데 있어 자유가 보장된 만큼 관리도 책임감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시청료 없는 TV 시청,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편한 외면

○...각 단과대 교학과에는 최근 몇 달째 줄어들지 않는 종이 대미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오리엔테이션 당시 모의토익시험을 본 학생들 중 50%이상이 성적표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영어패스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험 결과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신이시여 시험에 든 학생들이 제발 찾아가게 해주소서(!)"

출장요리

○...최근 동약을 갔다보면 요리 동아리가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데.

이유인즉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휴게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학생들이 때문이라고.

음식냄새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쉬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마음에 드는 냄새따라 골라 가입 하세요(!)"

토목환경전 열려

토목환경공학과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원흥관 토목환경세미나실에서 '제8회 토목 환경전'을 갖는다.

이번 토목 환경전은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10개 팀이 출품한 토목시설물 모형을 전시하고, 3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동문을 초청해 토목업계 현황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토목환경공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신입생들의 전공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그라미 사진전시회

중앙도서관·팔정도에서 사진 동아리 동그라미가 오는 15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2층 동국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아리 회원들이 자유주제로 찍은 사진 중 흑백사진을 중심으로 4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3일간 동아리 홍보를 위해 팔정도에서 전시회를 연다.

한편, 중도 동국갤러리 이용신청은 중앙도서관 2층 학술정보관 리셉션에서 받는다.

대학원 체육대회 진행

14개학과 9개 종목 출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병삼·불교학과 박사과정)가 오늘(12일)부터 16일까지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에서 '2003학년도 대학원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국어문학과 등 총 14개학과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축구, 족구, 농구, 장기 등 9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신병삼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 관련 신간도서 발간

공학법제·신 경제법론

출판부가 △공학법제 △신 경제법론 등 신간도서 2권을 발간했다.

공학법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연 기영(법학) 교수 외 4명이 집필했다.

또한 김영주·김상경(법학) 교수가 공동 집필한 신 경제법론은 △경제법 총론 △경제체제와 질서 △독점규제법제 △국제경제관계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들이 경제생활의 균형과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경제법분야에 대해 다루었다.

졸준위, 취업주간 설정

단과대별 취업설명회 등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영·토목4)가 내일(13일)부터 20일까지 '취업주간'을 설정해 직무적성검사,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단과대별 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한 관계자는 "전공에 맞는 취업 설명회가 진행돼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일시: 14일 오후 3시, 5시 30분
15일 오후 3시
장소: 학림관 소강당
동국관 L501

해외 유학·연수 상담

일시: 13일 오후 6시 ~ 오후 7시30분
장소: 원흥관 E103

단과대별 취업설명회

시간: 오후 6시 ~ 오후 8시
△14일: 법과대학(동국관 M304)
△15일: 문과대학(명진관 308) 이과대학(명진관 308)
△16일: 생자대학(해화관 202) 사과대학(동국관 L401)
△19일: 불교대학(문화관 307) 예술대학(문화관 308)
△20일: 정산대학(정보문화관 402) 사범대학(학림관 301)
△21일: 공과대학(원흥관 104) 경영대학(동국관 M304)



합찬 '점프' ... 총 30팀이 참가한 가운데 새내기 농구대회가 만해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오는 22일 결승이 열릴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총대,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발표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한편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무기한 예산정지를 받은 공과대는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정지가 해제됐다.

단위	정계내용	세칙초항 및 정계사유
이과대	없음	
문과대	주의	24조 1-3항 감사자료 내용 미비
경영대	엄중경고	24조 1-2항 감사자료 제출시한초과 1-3항 감사자료 내용 미비

총여, 대동제행사 접수

운동경기·벼룩시장 물품 등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유미·국문3, 이하 비대위)가 대동제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운동경기와 벼룩시장물품 접수를 받는다.

운동경기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공기놀이 △고구무술이며 탁구와 배드민턴은 여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경기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유미 비대위원장은 "행사 종목은 백지대자보를 통해 수렴한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앨범 촬영

구 도서관·불상 앞에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영·토목4)가 2003학년도 졸업앨범 및 CD동영상촬영을 오늘(1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졸업앨범 촬영은 구 중앙도서관 실내와 불상 앞에서 진행되며 △사복 단체사진 △프로그림 개인사진 △그룹 단체사진 △학사복 개인사진을 촬영한다.

이날 촬영은 10인 1조로 진행된다.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시행시기** 2003. 6. 2(월) ~ 6. 15(일) 중.
- 대상**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도 중 일률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도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대상자** : 200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03학년도 8월 졸업) 중 사범대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사범대학생: 교직과목 22학점, 전공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다. 비사범계 학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 접수기간** : 2003. 6. 9(월) ~ 6. 13(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내 게시판에 출력 가능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

왜곡된 性文化와 性産業의 실태

1. 일 시 : 2003. 5. 26.(월) 14:00~16:00
2.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3. 강 사 : 김 강 자 총경

- ◇ 주요 약력 ◇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서울특별시 성폭력상담실장 역임
▶ 대한민국 여성1호 경찰서장 역임(육천경찰서장)
▶ 서울 중앙경찰서장 역임
▶ 現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現 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 주요 저서 ◇
▶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2000, 푸른 숲)
- ◇ 수상 경력 ◇
▶ 제16회 올해의 여성상(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0년)
▶ 모범사회활동대상(SBS문화재단-청소년선도부부, 2000년)
▶ 제1회 공무원인권상(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2000년)
▶ 한국내지언이 뽑은 2001년 한국최고의 여성상(2001년)
▶ 훈장(정부), 근정포장(대통령), 녹조근정훈장(대통령) 등 각종 훈·포장 수여

『1학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민 해결, 함께 해소!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집 단 명(리더)	참가대상	일 시
진로탐색 집단 (김수리, 한국청소년상담원)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생각이 많거나 자신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원하는 2, 3학년 동국인	매주 수 3-5시
자기표현향상 집단 (권숙경, 라파엘리상담연구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동국인	매주 금 3-5시

- ◆ 집단상담 기간 및 횟수
4월 29일~5월 30일까지, 매주 수·금, 각 집단별 5주 5회 진행
- ◆ 접수 및 문의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각 집단별 선착순 10명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평상복을 입고 등원했다가 동료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선서식을 거행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국회도 일터에 불과한 곳인데 일하기 편한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행동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징적 항의로 정장 차림의 모습 대신 캐주얼 차림으로 선서식에 임했다는 당사자의 설명이 뒤따랐다.

이 경우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세대 간 차이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데 반해, 다수의 기성세대는 예외와 전통의 차원에서 정장 차림을 선호하는 듯 했다. 양 쪽의 주장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 해답은 단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서식 같은 특별한 날을 제외해 놓고 대부분의 회기 동안 편안한 복장이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종흡
영화영상학과 교수

다양한 복장이 중요한 이유

그러나 문제는 다양성이 타협으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타협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다양성은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획득하는 것이기 쉽다. 정책의 산물이라는 말이다. 지역, 혈연, 학벌, 계급, 남녀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는 불가피하게 논쟁적이고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공존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갈라져 있다는 말이다.

다양성은 강자로부터 쟁취해 얻는 것

게다가 이 갈등구조가 항상 계속적이라

는 점도 문제다. 어느 한 쪽의 힘이 다른 편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성을 원치 않는다. 일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만큼 더디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결국 삶의 방식이자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여서 화해와 타협으로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다양성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이런 논의가 그대로 국제적인 상황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은 문화가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경제적 관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그래서 문화도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 획일적인 국제적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강대국의 입장이다.

만약 한국의 영화, 언론 그리고 교육을 강대국의 시장법칙에 휘둘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문화적 산물로 지켜내고 싶다면 강대국에 대 놓고 문화적 다양성을 요구한 만큼 이와 똑같은 내부의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내부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외부와의 관계에서만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설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부에 담당하려면 내부의 다양성부터

따라서 자유로운 복장이 국회에서 허용되는 문화가 정립되는 것은 실제로 예외와 전통이라는 형식논리 이전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다양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려면, 그 주체는 당연히 젊은 학생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학과제 전환의 의미와 과제

전공 내실화 · 학과 경쟁력 확보 관건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 진행해야

본교가 지난 96년 학부제 실시 이후 약 10년 만에 학과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교무처는 오는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부 단과대를 학과제로 모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해 학과제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도 학과제 전환이라는 큰 틀에 대해 일정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여서 조만간 전 단위의 학과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제의 폐해

본교는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5·31 교육개혁'의 하나로 학부제를 도입했다. 당시 학부제 도입은 세계화·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나, 이러한 자율권은 △전공교육 부실 △사회진출에 유리한 학과로의 편중 현상 △기초학문 위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실패한 교육개혁'으로 전락했다.

결국 학부제가 실시된 지 약 10년 만에 많은 대학들이 학과제로의 전환 모색을 시작하고 본교 또한 올해 일부 단과대학의 학과제 전환을 결정했다.

학생의견 소외

이번 결정은 홍기삼 총장의 "교육의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학부제의 존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과제는 교육부의 정책에 어긋나 지원금 감소 등 재정적인 이유로 쉽게 학부제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의 논의가 배제된 채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측은 4월까지 각 학과의 논의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교수와 학생과의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과) 학자투위원장은 "학교측이 학과제 전환 여부를 확정할 후 학생들에게 알렸다"고 말해 그 심

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부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제 전환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시급한 학과제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후속조치 따라야

지난 8년 동안 학사제도와 교과과정은 학부제 체제에 맞게 변화된 부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학과제에 맞는 학사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학과제 회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전공의 부실화'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학과제 당시 개설된 전공필수는 현재 복수전공이 활성화되고 교수·강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유사전공학과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의 중복 편성을 막

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개편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학부제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 비인기학과 학생 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 신입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짧은 일"이라며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개혁은 준비 부족과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가 아닌 일방적인 결정으로 실패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다시 개혁의 흐름을 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오는 28일 진행될 학교와 학생측의 토론회를 내실있게 진행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설

한총련합법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올 초부터 공문화 됐던 한총련 합법화 관련 문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채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해결할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의 약속 시한은 이미 열흘 이상이 지났다.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이 연이어 연행돼 우려와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왜 속시원히 결론짓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가. 무엇보다 검찰의 '현행 법 고수' 원칙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은 "한총련은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단체로 이적성 철폐 및 일괄 불기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총련이 변화하지 않는 한 검찰의 판단도 바뀌기 어렵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한총련은 여러 차례 '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11기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지난달 14일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새로운 학생운동을 모색"한다고 공언했다.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월 대학생 축제'를 계획, 새로운 학생운동의 포문을 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한총련 '혁신'은 이미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의돼 왔던 문제였기에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때문에 '한총련이 변해야'라는 전제는 이제 무의미하다. 이미 성립된 조건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반미를 외치고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한다고 반국가단체를 운운하는 검찰 측 입장은 편견과 오해에서 기인한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사상적 편향이자 '기울어진 차대'에 불과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한총련 문제는 인권차원에서라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몇 년째 수배생활을 하는 한총련 대의원들의 건강권, 이동권, 사상 및 결사의 자유 등은 언제까지 침해받아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상대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한총련의 '있는 그대로'를, 그들의 순수한 사회 비판의식과 노력을 이제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다가오는 '5월 대학생 축제'에는 굴레에서 벗어난 한총련과 많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활로를 자유로이 찾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이상영, 부주장: 구본철,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한보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서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054)770-2058 (054)770-2057

200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공고

- 개설대상 교과목**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 2003. 6. 23(월) ~ 2003. 7. 18(금)
- 주 4일 수업일(화·화·목·금요일, 16일간 - 단, 7월 16일(수)은 수업일치)
나. 단과강좌
1) 수형과 골프과목은 주 5일 수업(월 ~ 금, 10일간)
가) 골프: 6. 23(월) ~ 7. 4(금)
나) 수영: 7. 4(금) ~ 7. 18(금)
2) 산사의 생활(2박 3일) - 7. 21(월) ~ 23(수)
*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외과목 : 8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 수강지역 및 신청확정**
가. 수강지역 :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나. 신청확정 : 6학점 이내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별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과 동시에 재수강신청원 (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서 재수강 처리됨.
 - 수강신청**
가. 기간 : 2003. 5. 13(화) ~ 5. 15(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1) 서울캠퍼스
(가) 시간 : 5. 13(화) 오전 09:00 부터 5. 15(목) 24:00까지
(나) 장소 : 지정된 교내 자유 실습실
(2) 경주캠퍼스
(가) 시간 :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 (나)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 다.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라. 자세한 사항은 2003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 추가 및 취소·정정[2003. 5. 28(월) ~ 5. 28(수)] 외에 추가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신중히 수강신청
(2) 사전에 2003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 참조와 더불어 수강신청서 2학기 개설예정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3)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4) 수강신청 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 바람.
 -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0,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지부 부담.
 - 수강신청 장소
- | 건물명 | 실습실명 | 개방시간 |
|------------|-----------|---------------|
| 명진관2층 | A2 | 09:00 ~ 22:30 |
| 동국관M1층 | Cyberland | 09:00 ~ 22:30 |
| | BSC7 | 09:00 ~ 22:30 |
| 동국관M5층 | BSC10 | 09:00 ~ 22:30 |
| 정보문화관P동 5층 | ESC4 | 09:00 ~ 22:30 |
| 정보문화관P동 2층 | ESC5 | 09:00 ~ 22:30 |
| 화림관 3층 | JE | 09:00 ~ 22:30 |
| 중앙도서관 1층 | 정보검색실 | 09:00 ~ 17:00 |
| 해화관 2층 | CAMPUS# | 09:00 ~ 22:00 |
- 개설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3. 6. 11(수) 예정
 -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3. 6. 2(월) ~ 6. 5(목), 4일간
나. 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업료 납부고지서 출력 후 제일은행(전지점)에 납부
 - 유의사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 (6월 11일 공고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환불과 관련하여 학사지원실(2260-3048)로 문의 바람.

2003년도 IT분야 해외연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시업개요**
* 국내 우수인력을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실시
- 시업목적**
* 국내 대학(원)생이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서 IT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IT지식과 기술에 Global 감각을 배양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IT인재를 양성
- 개설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
[개설 프로그램]
(1) OCP-DBA(Oracle Certified Professional-Database Administrator 과정)
(2) Internet Programming 과정
* 각 프로그램에는 1개월 이상의 Real-time 프로젝트가 포함됨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 700만원/1인당
* 학교지원금 : 본교 등록금의 70%/1인당
(단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은 필히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예비신청자)**
* IT(부, 복수)전공 학생으로 최소2학기 이상 마친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총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
* IT관련전공 : 정보통신,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전기/전자, 반도체, 전자통계 등
* 영어 성적이 TOEFL CBT 190(PBT 520), TOEIC 700, TEFS 602, G-TELP 85(Level 3), 69(Level 2) 이상인 자

* 2003학년도 2학기까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 IT과목을 15학점이상 수강한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신청인원의 20%이내에서 예비 선발 가능
* 영어 성적이 만족이 안되어도 1개월간의 토익강좌 수강 및 개인 학습을 통하여 토익 700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비선발자로 선정
* 5월 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1개월간 야간에 영어 토익 강좌를 개설할 예정임
- 신청절차**
*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은 우선 5월 5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6월말 토익 영어 시험을 일단 필히 신청하기 바람.
* 위 영어성적은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7월말까지 공식 성적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기한
- 1차 : 2003년 5월 16일(금) 16:00까지
- 2차 : 2003년 7월 18일(금) 16:00까지
* 1차 신청 후 잔여 T/O 범위 내에서 자격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접수함, 공식 영어성적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또는, 정보산업대 교학과 양식비치)
- 받아 작성한 후 정보산업대 교학과에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1.지원신청서 2.수학계력서 3.성적증명서 4.공식 영어성적표 (추후 제출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정보산업대학 교학과(02)2260-3863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김양우 교수(02)2260-3821, ywkim@dongguk.edu
- 추후입영**
(1) IT 해외연수 설명회 : 2003.5.13(화), 오후5시, 다량관세미나실
(2) 1차 신청서 접수 : 2003.5.16(금)까지 1차 지원접수 마감
(3) 토익 강좌 : 5월 중순 ~ 6월 중순, 모의 토익 실시 및 특별 토익시험 실시
(4) 1차 선발 확정 : 6월 25일경까지
(5) 재안서 접수 : 6월 말 (30일 신청)
(6) 국내교육 실시 : 7월말 ~ 8월말 (최종인원 확정)
(7) 해외교육을 위한 출국 : 9월초
(8) 해외교육 : 9월 ~ 2004년 2월
- 개인 필요경비**
전체 필요경비는 수업료, 항공료, 보험, 교재 등을 포함하며 아파트 렌트 또는 휴스텔에나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대략 1700만원 내외가 될 것임.



ON - AIR

정치수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 새봄 방송입니다.

세봄방송의 볼륨을 높여요

‘정치수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 새봄’ 인터넷 방송이 개국한 지 약 세 달이 되었다. 참여정부에게 수배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방송은 정치수배자와 일반 인간의 소통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방송 제작진들이 생각하는 새봄방송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웹 전파’를 탔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이건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오 늘은 반드시 방송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연세대학교 정치수 배자모임 사무실. 유영업(수배7년차)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무실에 모인 정치수배자 송용한(수배6년차) 씨, 이 신라(수배3년차·단국대4) 씨의 표정 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인터넷 방 송 컴퓨터 프로그램과 씨름한 지 몇 씨 이틀째, ‘오늘 방송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약해질 무렵이었다.

결국 방송시간을 5분 앞두고 정치 수배자들은 컴퓨터 본체를 뜯어 다른 사무실로 뛰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사 이버지키의 멘트가 ‘웹 전파’를 탔다. “오늘도 컴퓨터 때문에 늦게 인사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약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수배 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새봄’의 방송 준비는 이처럼 전무 같았다. 프로그램 오작동 등 ‘복병’이 실 틈 없이 나타 났기 때문이다

정부에 정치수배해제와 한총련 합

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출범에 맞춰 개국한 새봄방송은 정치 수배자들이 직접 제작·기획·진행하 는 말 그대로 수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방송이다.

유영업 씨, 송용한 씨, 이신라 씨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지금까지 이 방 송을 지켜온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배의 그늘 없이 일반인들과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만남을 늘 려 수배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벽을 허물어 수배해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때문에 방송은 수배해제관련 소식 및 한총련 소식을 담은 것은 물론 인 터넷 게시판, 이메일, 전화를 통한 수 배자들과 일반인과의 대화를 주선하 고 있다. 정치수배자들의 개인적 면모 를 볼 수 있는 영화·노래이야기부터 개그, 체조배우기, 즉석 노래·연주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봄방송은 정치수배자들

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새봄 플러스’ 방송으로 개편했다. 인 터넷 방송경험이 있는 김재연(수배2년 차·한국대4) 씨로 사이버지키를 교 체하고 돌발퀴즈 등 청취자들과 ‘호 흡’할 수 있는 코너를 늘린 것이다.

수배가 해제될 새로운 봄을 기다린 는 의미를 담은 ‘새봄 방송’. 진정 한 ‘새 봄’이 올 때까지 계속되길 기 대해본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새봄방송 ‘하이라이트’

‘수배’된 삶, 진솔한 이야기

그동안 진행된 ‘정치수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 새봄’ 인터넷 라디 오 방송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새봄 사이버지키와 단식농성중인 수배자 어머님들과의 수다

(지난 6일 방송) 사이버지키(김재연) = 오늘로 단 식 이틀째인데요, 낮에는 법무부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누굴 만나셨나 요?

이신라 씨의 어머니 = 아이고, 만 나간... 법무부 앞에서 전경들이 휘 두르는 방패만 맞고 왔어요. 결국 항 의서한만 정말 어렵게 전해졌지요.

사이버지키 =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어머니 = 힘들었지요. 특히 박제민 군 어머니는 단식 중인데다 삭발까지 했는데 오늘 비를 다 맞았어요. 단식 중이라 전경들 방패가 평소보다 더욱 아프게 느껴졌고요.

정치수배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7일·8일 방송)

사이버지키(김재연) = 오늘 수배 해제사무실이 있는 연세대학교 부근 시민 300분을 대상으로 ‘정치수배자 에 관한 몇 가지 오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결과는 ‘1위 지지분하다. 2위 개봉영화관람은 꿈도 꾸지 못한 다. 3위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도망 다닌다. 4위 임기가 끝나면 수 배가 풀린다. 5위 학교 부근에 돌아 다니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로 나왔 네요. 송용한 씨 정말 그런가요?

송용한 씨를 비롯한 정치수배자들 = 통학하는 분들보다 잘 씻을 수 없 는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 로 요즘엔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 끝까지 자수를 하지 않고 수배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는 국가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소중 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 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수배가 풀 리는 것도, 학교 부근에 돌아다니는 일이 안전한 것도 전혀 아니랍니다.

유영업의 ‘정치수배자개그’

(지난달 11일 방송)

유영업 =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생 활이나 정부나 검찰의 실책을 개그에 빗대어 표현하는 코너입니다.

대표적인 개그로 “나의 개그는 정치 수배자야, 다 숨어버리지”가 있지요.

송용경 기자 itsU@dongguk.edu

한총련 관련 공개간담회 현직검사 “일괄 불기소는 불가능”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지난 7일 국회현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경선(한국방송통신대학·헌법 학)교수의 발제와 법무부 검사, 여야 국회의원 및 법조인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으며 시민단체들과 한총련의 대의원 학부모들이 방청객으로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 였다.

특히 현직 검사가 한총련 문제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수(법무부 검찰 제3과장)검사는 이날 지정토론 에서 “한총련 수배학생들이 주장하는 일괄 수배해제 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법원 판결이기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핵심주동자 및 폭력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한총련대의원 학부모들은 “법무부 장관 은 진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현직 검사는 다 르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편협한 주체사 상을 한총련이 흡수해서 안된다”며 합법화를 위해서 는 “먼저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상설 의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려는 등 법무부·정부의 노력과 내부개혁을 위한 한총련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 학술포럼 유엔 위상과 역할 강화해야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학술시민포럼이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원과 한국의 대 이장희(법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단국대 김 석현(법대) 교수, 카톨릭대학교 박건영(국제학부) 교수 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위원은 이 라크 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으로 유엔의 무력 화와 선제공격주의 확산 등을 지적하고 “유엔의 위상 회복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말 했다.

이어서 발제한 한국외대(법대) 이장희 교수 또한 유 엔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반전평화여 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미국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 략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약문

‘뒷북’ 이라도...

새터를 잊었나?



“새터사고 보상은 어떻게 됐지? 세달 가까이 지 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네.”

지난 2월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 다녀 온 강 양은 요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새터 이 후 장염 증상을 보여 며칠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받기는커녕 보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터에 다녀온 △법대 △사과대 △생자대 △예 술대의 신입생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속리산 일대로 새터를 다녀온 학생 중

약 80%가 장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각 단과 대는 새터사고 대책위를 조직한 후 보건당국에 역 학조사를 의뢰하고 숙소측에 숙박비 전액 환불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음식과 식수 등에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 혀졌고 숙소측은 “위생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새터사고 보상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오름식과 중간고사 때문에 논의할 시간적 여

유가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학생회측이 즉각대응해왔다는 점 이다. 숙소측과 정부에 변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 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생자대는 새터사고 처리 주체가 없어 단위내 논의를 거의 해오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새터사고 처리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활동도 미진하다보니 당시 피 해를 입은 학생 중에는 이미 새터사고에 대한 보 상을 잊고 있는 경우도 많다.

새터사고에 대한 논의는 요즘에서야 다시 활발

해지고 있다. 각 단과대 새터대책위는 약 2주전부 터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 결과 숙소측으로부터의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주 중으로 보험회사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새터사고는 학생회측의 사전답사가 미숙했 기 때문에 발생했다. 학생회측은 ‘즉시대응’이라 는 또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다시 '읽는' 5.18 광주항쟁

문학이 있어 단절되지 않을 광주의 '역사'

문학적 기록 살펴보기



김남주시인의 시집 '학살'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부서놓은 붉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웅얼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 /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하종오의 '사월에서 오월로' 등의 시작품들이 그 예로,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저항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한 작가의 말처럼 말이다. 때문에 몇 년 전 '광주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장편소설 '봄날'과 '그들의 새벽'이 등장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었다.



소설집 '일어서는 땅'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



문순태의 소설 '그들의 새벽'



연기영 교수의 뒤집어 본 법이야기 (4)

노동기본권 위한 법령 개정해야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운송대란을 겪고 있다. 주요 철강업체의 진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내륙화물 운송까지 등이 막혀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거부하면서까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렴한 운송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단단계 운수유통구조 등의 화물악법과 함께 화물차주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

생태불교의 인식론 · 방법론 모색

- 1. 세계생태학의 동향과 전망
2. 불교생태학의 현주소
3. 불교생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불교생태학의 발전적 추진 방향

19세기 말 독일의 동물학자인 헤켈(Ernst Haeckel)에 의해 시작된 생태학은 이제 더이상 생물학의 한 분과학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존재자들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개념은 생태학과 불교가 공유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다.

해석함으로써 국내의 불교적 환경윤리 정립에 기초를 놓았다. 오형근은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물질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종표는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의 생명관과 자연관을 다루었다.

를 어떻게 구성하고 불교적 환경운동의 논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모색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을 초부터 흥기삼 총장이 본교를 '불교생태학'의 총본산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표방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와 동향

96년 5월부터 98년 10월까지 하버드 대학의 세계 종교연구센터에서 '종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일련의 포럼을 개최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불교와 생태학'이었다.

한편 법륜스님과 수경스님은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각기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불교환경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슈미트하우젠(L. Schmithausen)은 역사학적이고 문헌학적인 관점을 중시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환경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으며, 참여불교적 논리를 주장하는 해리스(H. Harris)와 켄트웰(C. Cantwell)은 각기 남방 불교와 티벳 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주목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지난 2일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인식과 방법

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생태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불교와 생태학의 문제는 생태학에 대한 불교학적 인식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지속하며 또 소멸시키는 원천적 에너지는 바로 유기체들의 욕망,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모든有情(有情)들의 업력(業力)이다.

교수동정

- △김선근(인도철학)=인도 Neru University와 Barnaras Hindu University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7일간 인도 방문.
△임둔희(사학)=파리 국립 고등 사회과학대학원 초청 강연차 오늘부터 12일간 프랑스 파리 방문.

류승주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소나기 사스 공포를 바라보며



△찬호형 부진도 사스 때문이다.
 △난 이미 걸렸다. 사스 한달째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공포는 이제
 끝난 것인가?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건 따로
 있었다.
 △사스 빨리 사라져라. 친구 중국
 유학 가서 공포에 떨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감기 걸렸는데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사스 없어져라.
 △요즘 사스가 프로토스의 소행이
 라며 떠들게 되는 정신병이
 유행이란다. 죽어야 고친다냐?

△평소에 청결에 신경 썼어야.
 △사스는 감기 바이러스라 흡수
 않으면 안 걸린다는 데요.
 △사스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 하락한다고
 한다. 지금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워 진단 말인가?
 △비오는 날 내가 사스보다 더 싫고
 끔찍한 것 = 신발에 붙 들어온 것.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보다 손을 깨끗이
 씻자.
 △마스크 얼마예요?
 △에이즈랑 사스랑 형제래~
 △우리학교도 휴교하자!
 △나 사스나간 조심해!
 △사스보다 학점이 무서워.
 △사스 때문에 지구종말이 온데.
 점쟁이가 그랬어~
 △사스랑 에이즈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려운 거려면 목숨걸자!

호주제 반대 다함께 외치자!

호주제 폐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할 '노(NO)호주제-호주제 넘어 오라차
 차 신나는 사회' 사이트(www.no-
 hoju.or.kr)가 개통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사이트를 둘러보게 되었다.
 이 사이트에는 호주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 호주제
 로 인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
 여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호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작년
 한 TV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각자 이혼을 하고 재혼한 부부가 겪게
 된 일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 살고 있
 는데도 법적으로는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부인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부부는 물론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었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호주
 제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의 상징으
 로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잠시나마 혼란을
 겪겠지만, 혼란 뒤에는 평등하고 다양
 한 가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
 루빨리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당장 나와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할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의 일이고 어
 쩌면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 호주제 폐
 지에 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
 으면 한다.

이승은(불교대)

허스키 보이스, 그 처절함의 미학

노래를 들을 때 가수의 개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은 가수의 음
 색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 맑고 투명한 목소리보다는 거칠
 고 험 목소리가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
 다. 이른바 허스키 보이스가 바로 그것
 이다.
 이런 음색의 소유자들은 그 강한 개
 성으로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쉽게 각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는 주로 열매적이고,
 퇴폐적이다. 그 속에 슬픔과 한의 정서
 가 녹아있다. 이 때문에 블루스나 소울
 (soul), 국악의 창과 같은 우울함이 배어
 있는 음악을 하는 가수들 중에는 허스
 키 보이스가 많다.
 내가 처음 허스키 보이스의 매력을
 느낀 것은 김현식의 노래를 듣고서 였
 다. 라디오를 통해 들려지는 '내사랑 내
 곁'을 외워서 부르곤 했던 일이 기억
 난다. 그가 생명을 마감한 뒤엔 전인권,

임재범을 거쳐 레이 찰스 같은 소울 가
 수 등 나의 허스키 보이스 편력은 십 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슬픔의 정서에 익숙
 해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탐 웨이츠라는 사람이 있다. 목소리의
 절충함이 모든 가수들 중 최고로 꼽힐
 만큼 처절한(?) 보이스를 가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뮤직션 중에 한 사람이
 다. 항상 술에 절어 있고 수염은 덩수룩
 하며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그가
 무엇이 좋냐고 묻는다면 시원스런 대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우리
 의 삶은 결코 맑지도 청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거칠고 슬프고 삭막
 함이 우리가 사는 모습에 더 다가가 있
 기 때문이라고. 밝고 투명한 노래를 듣
 기도 이따금 그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지
 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닐까?

이종현(사과대1)

지상논쟁을

철학과 홍윤기 교수는 지난 5일자 본지를 통해 "학과제 회귀 방식이 △교육의 질적 개선 불투명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지상논쟁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9일 독일학과 임호일 교수가 홍윤기 교수의 의견을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임호일 교수의 글이다.

편집자

제안한다

문제는 전공교육의 질 향상이다

학과제가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이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홍 교수도 인정하듯이 학부제 시행 이래로 학과제 시절보다도 전공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면, 절대
 적인 대안이 없는 한 상대적인 대안, 즉 학과제로 일단 회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다른
 대학 교수들은 학과제로 돌아가고 싶어도 학교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
 에서, 홍기삼 총장은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에서 원하면 그 뜻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에 필자는 문과대학장으로 각 학과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지난 5월 5일자 '동대신문'은 홍윤기 교수가 기고한 '학
 과제 회귀 결정,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바 있다.
 홍 교수는 이 글의 도입부에서 지난 8년 간 시행되어온 학
 부제의 결정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는 가운데, 학부
 제가 야기한 부작용 중 가장 큰 것의 하나가 전공교육의 질
 저하임을 통치치 않고 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질타는 학부제가 야기한 제반 문제의
 핵심을 관통한다.
 "필수 학점 폐지로 인해 전공 수업 시간이 현격하게 단축
 됨으로써 전공 교육의 질은 도리어 떨어졌다는 비난을 면
 키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적은 그간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해온 교
 수들 대부분이 학부제의 문제점으로 공감해 왔던 것이다.
 필자도 일찍이 교수신문(2000년 12월 4일자)과 본교 교수회
 보(2001년 8월 20일자)를 통해 학부제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으로 전공 교육의 질 저하를 꼽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두 사람은 학부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학부제의 대안으로
 학과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다
 만 홍 교수의 말대로 그 시행시기의 문제를 두고 그와 필자
 의 견해는 엇갈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논의한 끝에 - 필자는
 문과대 학장 자격으로 그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 홍
 교수도 '학과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학부제의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후속조치가 보장될 경우' 2004학년부터 시행될
 학과제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필자는 문과대
 학장 자격으로 책임지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
 했다.

다시 말해 200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학과제 단위로 선발
 한다 해도 전공 강의는 대부분 2005학년도부터 시작되기 때
 문에 그간에 해당학과 교수들의 참여 하에 후속조치에 관
 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필자의 말에 홍 교수는 학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간의 얘기들은 일체 생략한 채 그가 이
 제 와서 다시금 '학과제 전면 회귀' '조급한 결정', '학과제

문제점의 '사후보완' 운운하고 있으니 필자는 그저 어기가
 없을 뿐이다. 게다가 홍 교수는 문과대가 단 두 차례의 학
 과장 회의를 거쳐 2004년도 학과별 신입생 모집을 결정했
 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도 사실의 호도임을 밝혀야 할 것
 같다.

필자는 두 차례의 학과장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문과대
 학 전체 교수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이 자리에서 학부제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의 논의는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학과별로 충분한 논
 의를 한 후에 종합된 의견을 학과장을 통해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여 마련된 것이 두 차례에 걸친 학과장 회의였던 것
 이다.

홍 교수의 사실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철학
 과가 '학과제 회귀 여부에 대한 조급한 결정의 유보를 강력
 히 요망'했다고 표현, 마치 철학과 교수들 전체가 강력하게
 유보의 뜻을 표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과 교수들 5인 중에서 홍 교수만 그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 물론 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후에
 이 뜻을 바꾸었지만 - 그 밖의 교수 두 분은 처음부터 학과
 제 전환에 동참했으며, 나머지 두 분도 모두 홍 교수와 같
 은 이유로 애초의 뜻을 꺾고 학과제 전환에 동의한 것이다.

홍 교수의 글을 읽고 우려되는 바는, 그가 대학 당국 및
 동료 교수들을 '사려 깊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학과제를 지지하는 교수들을 '단지 학과제가 만능
 임을 믿는 교수들'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학
 과제에 동참하는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그리고 이미 학과
 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범대 소속 교수들 모두가 판단력이
 결여된 생각 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인간과 사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과정에 있으며,
 의식이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
 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홍 교수가
 어찌하여 이렇게 진리를 독점하려드는지 필자는 안타까울
 뿐이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수배자 일상취재 인상적 학과제 회귀 문제 지적 동감

지난호 동대신문은 '개교 100주년 행사'와 '한총련 합
 법화'의 큰 두 주제로 이루어졌다. 근본적인 개교 100주
 년 기념 사업은 우수한 학생들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재학생들을 양질의 교육과 출
 통한 인성교육을 통해 걸출한 사회적 재량을 갖춘 동국
 인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주제는 '한총련 합법화'였다. 한 한총련 대의원
 의 일상을 취재한 것은 제도권 내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
 움을 학우들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홍윤기 교수의 '학과제 회귀 결정, 문제 있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인기·비인기 전공이 뚜렷해지고 이로 인
 해 수업의 질 저하, 과 소속감 결여, 전공에 대한 전문
 성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학부제를 반대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학과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은 반
 가를 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을 다시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학과제'의 시행이다. 피해를 보
 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내언론인 동대신문의 역할일 것
 이다.
 황현실(사과대 사회4)



축하합니다

△5월 14일 노래야 생일 축하해!
 △형욱야 생일 축하해 -정원
 △평정학과 02학번 이명운!! 5월10
 일 생일 축하한다. -BK
 △5월 9일은 경영대 김호연 생일입
 니다.
 △5월 15일 현주야 생일 축하해!!
 범동대 생활도 더 잘해.
 △박경리 생일 무진장 축하해. 지금
 처럼 항상 멋지게 살아!
 △5월9일이랑 10일이 유진이란 현
 수 생일이라는데, 뜬눈이고 미안!
 그래도 생일 축하해. 그리고 5월5일
 우리 300일이었어. 축하해줘. 정대
 오빠 사랑해.
 △지난 9일 정보시스템의 오은섭
 군의 생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사
 랑해 은섭씨! -지윤

동악광장

△김성준 삼삼 일사 축하.
 △박경리 생일 무진장 축하해 지금
 처럼 항상 멋지게 살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대, 문과대 학산리 봄 농활
 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이쁘게 자란 호박 모종을 위하여.
 △정원야 시험 치느라 수고했어.
 △익현야! 그동안 말고생 몸고생
 많았다. 결과가 어땠든 간에 그동안
 누릴수 없었던 여유 피맛기를, 대박
 나기를 바라며.
 △민성야 M.T 준비에서 뒷처리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발살까.
 △10일 국제통상 vs 경영 축구시합
 모두 열심히 땀시다.
 △슬기야 수고한다.회자언니 받고마
 워 그리고 매트릭스 꼭 보여줘!

열심히 합시다

△블미 03 열심히해.
 △TBI FOREVER ~!
 △선무부 연무시험 준비 열심히 합
 시다.
 △사학과 동문체육대회 준비 열심히
 하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유나 공주
 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세요. 파
 이팅!
 △재훈야 열심히 해.

그리고...

△소형야! 소개팅 3번
 △정훈야! 슬럼프사취
 △중도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제발
 사람 많을 때에는 눈치껏 시간 때
 읍시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5/12)	쇠고기해장국 (1500) 치킨가스 (1500) 갈비경단백반 (1500)	순두부찌개 (1300) 쇠고기볶음밥 (1500) 열무부침밥 (1500)	된장찌개 (3000) 콩나물국밥 (3200) 닭강정 (3200)
화 (5/13)	갈비탕 (1500) 지장밥 (1300) 탕수육백반 (1500)	닭곰탕 (1500) 김치오징어볶음 (1500) 제육덮밥 (1500)	된장찌개 (3000) 설렁탕 (3200) 고등어무조림 (3200)
수 (5/14)	꼬치어묵우동 (1500) 오징어떡볶음 (1500) 비빔밥 (1500)	부대찌개 (1500) 순살돈가스 (1500) 참치회덮밥 (1500)	된장찌개 (3000) 오징어돌솥밥 (3200) 장조림백반 (3200)
목 (5/15)	장조림백반 (1500) 모듬볶음밥 (1500) 푸꾸미제육볶음 (1500)	떡만두국 (1500) 쇠고기카레 (1500) 돈간풍 (1500)	된장찌개 (3000) 함박스테이크 (3200) 두부김치 (3000)
금 (5/16)	사골우거지탕 (1500) 참치김치덮밥 (1500) 치킨샐러드 (1500)	쇠고기들깨탕 (1500) 미트스튜음밥 (1500) 감자수제비 (1300)	된장찌개 (3000) 뚝배기불고기 (3500) 낙지덮밥 (3500)

국립극장 '시민참여' 열쇠로 문을 열다

'예술축제 FAM' 등 열린 행사 풍성 ...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과학관... '국립'이라는 말이 말머리에 붙으면 그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 단정짓기 마련이다. 국립극장 역시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사실 공연장에 비해 훨씬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도 시민과의 벽을 허무는 방편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립극장이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진행되는 '예술축제 FAM(Folk and Modern)'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실험극을 소개하는 자리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하는 '해외 초청 작품', 젊은 예술가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국내 창작

작품', 공연되는 작품의 제작의도 등을 제작자와 관객이 이야기하는 '워크샵'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탈장르화 되고 있는 요즘 공연계의 실정에 걸맞게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고정 장르의 틀을 탈피한 작품들로 선별해 선보인다.

축제의 막을 올리는 작품은 집행위원회가 직접 제작한 'FamFam - 소리미로'로 전통 타악과 전자기타가 춤과 어우러진 공연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은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연출가 루시 베일 리가 연출하고 '최고의 현대 클래식 음악 엔터테인먼트 팀'이라는 찬사를 받는 '고그마폭스'가 공연하는 '검보 점보(20일~22일/ 해오름극장)'이다. 이 작품은 음악, 연극, 몸짓이 결합해 정통 클래식 현악 연주와 조화를 이뤄 클래식 공연의 틀을 과감히 깬다.

또한 탱고 피아니스트 엔리케 쿠티니의 피아노 연주와 탱고춤이 조화를 이루는 '탱고 이모션(16일~18일/ 별오름극장)'도 눈길을 끈다. 특히 탱고 무용수 송연희 씨가 해설을 덧붙여 탱고가 낯선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관련한 행사로 제작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워크샵(16일/ 별오름극장)과 아르헨티나 탱고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탱고워크샵(17일/ 별오름극장)이 별도로 진행된다. 국내 작품으로는 타악퍼포먼스 '두드락'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광동, 옛가위, 대나

무 등을 이용한 독창적인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야외 행사도 풍성하다. 행사기간 내내 공연장 부근에서 오페라 영화의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필름페스티벌'과 세계 각국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추억의 장터'가 열린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승화한 화가 정장기의 '징 울음소리에 하늘 문 열리고...(14일~22일/ 해오름극장 로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외에 인형공방, 사자춤·협합 공연 등 많은 야외 문화행사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원회 김해욱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료 야외 행사를 많이 마련했다"며 "고급문화라는 인식을 버리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극장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행사들은 공식 기관의 주최·협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활발해진 국립극장의 '문 열기' 노력은 FAM 외에도 볼 관련 문화행사 '꽃바람 신바람'과 유명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2003 토요일문화광장'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국립 모두를 관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국립극장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립극장 공연은 '그렇듯만'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국립극장이 근엄했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우리 관객들도 고급 문화의 대중화 바람을 타고 국립극장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만화가 있어 행복한 삶"

김봉찬
프리랜서 만화가·컴공4

#오전 11시
남들은 벌써 다들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음직한 시각에 새벽나절이 되어 서야 간신히 잠자리에 든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나 간단한 세면을 마친후 작업실로 향한다. 요 며칠째 계속 평균 수면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을 채 못넘기고 있다. 수면이 부족하다.

#나의 직업은 프리랜서 만화가
의뢰를 받아서 잡지의 삽하나 만화, 혹은 게임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일을 하는 나의 직업은 우리집 옥상방이다. 올라오니 라이트 박스와 스캐너, 컴퓨터 등 나에게 돈을 벌여다 주는 친구들이 여럿히 나를 반겨준다.

간단하게 메일을 확인하고 난 후 새벽에 끝마친 원고의 펜선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캔. 디지털 작업과 인터넷 환경은 작업의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 같았으면 컬러 원고의 경우는 채색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수많은 도구들과 시간상의 낭비로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일들을 디지털 작업은 마치 미술처럼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처리를 해준다. 컴퓨터란 녀석은 대견한 녀석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뢰를 받을 때라던가 대부분의 작업들을 방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밖에 나갈 일이 없는 직업이지만 오늘은 외부에서 약속이 있다.

게임회사의 의뢰를 받아 게임 일러스트를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제작은 혼자서 작업하는 개인직업과는 달리 여러 분야의 많은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회의가 필요하고, 오늘 오후엔 그것을 위해 나갔다 와야 될 듯 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 사이 스캔을 다 받고서 여러 불들을 이용하여 원고의 채색을 시작한다. 이 생활을 시작할지도 2년째이기에 그동안의 노하우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여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 많은 원고의 채색을 세 시간만에 모두 끝냈다. 다시금 컴퓨터 효율에 감탄하며, 마무리된 원고를 메일로 보낸다.

시계를 보니 벌써 회의에 나갈 시간이 임박해온다. 이제 겨우 하나 끝냈는데, 투덜거리며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피곤함을 뚝에 달고 자리를 일어난다.



국제영화제 부럽지 않은 '작은 영화제' 를 만나다

영화영상학과 '작은 영화제' 개최 ... 앞으로도 관객과 호흡하는 행사 마련하길

우리 영화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쟁이라도 하듯 제작비를 올렸지만 영화의 작품성과 예술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영화영상학과 '작은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만나면 이러한 우리 영화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까.

학원관에서 열린 '작은 영화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프로 영화 제작자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대학생 아마추어 기획자들이 특유의 끼를 살려 마음껏 발산해낸 자리였다.

이와 관련해 작은영화제 김건우(영화2) 기획장은 "학내에서 졸업영화제 외에 행사를 열어 우리가 만든 영화를 알리고 싶

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부모와 피해망상증 자녀의 쓸쓸한 모습을 담은 '오오 사랑하는 우리집'과 두 남자가 자장면을 먹는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 그를 그린 '종로 온천장' 등 최단 5분에서 최장 30여분까지인 19편의 짧은 영화들로 꾸러졌다.

특히 '비몽'은 지난 2002년 'NKINO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8분이란 짧은 상영시간 동안 나타내 영화제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객석에서 만난 정필수(불교대2) 군은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애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다"고 말했다.

또한 'MY LOVE STORY'를 포함한 몇몇 작품은 상록원 식당 등 본교의 구석구석을 필름에 담아 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했다.

이외에도 '소년 소녀에게서 길을 잃다' '카프리콘' 등은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비를 지원 받아 대학생이 제작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제작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영화제는 방대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어찌된 작고 볼품 없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슴에 닿는 감동을 느끼기 어려운 요즘 영화에 비한다면 이번 영화제 상영작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짧은 상영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실속있는 작품들이었다. 앞으로도 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만이 고치지 않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학내 문화행사로서의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길 기대해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문화단신

온라인 음악저작권 토론회

'온라인 음악저작권의 징수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1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음악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업계의 합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며 원용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음원저작권 실태조사 현황과 운영과제, 음악콘텐츠 시장의 변화와 이용환경의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백강(음원제작자협회 사무총장), 함용일(음원회사협회 대표) 등이 발표한다.

토론회로는 박성훈(버스뮤직 대표), 임원선(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민중가요 페스티벌

민중가요 페스티벌 첫 번째 이야기 '평화'가 민족예술인총연합회의 주최로 지난 1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인 TLL 광장에서 열렸다.

민중가요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 전쟁반대·평화의 메시지 전달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민중가요의 현주소를 재조명 해보는 자리였다.

또한 손현숙, 박창근, 이반밴드, 밴드비바 등 출연한 1부 공연은 평소 민중가요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5월 광주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부 클럽 공연은 대학로 SH클럽에서 진행됐다.

2003학년도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1. 파견기간 : 2003. 9. ~ 2004. 8. (1년)
2. 해당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지역

해당국	해당대학	선발인원	지원지역
미 국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5	학부과정 3학년 1학기(5학기)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의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취득한 자
	샘휴스턴주립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5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5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지원이 불가함.

3. 수확조건
가. 본교측 :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는 장학금으로서 감면함.
나. 해당대학측

해당대학	경비부담	비 고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수업료 및 체재비 : 본인부담	세부 경비내역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샘휴스턴주립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수업료 및 체재비 : 본인부담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수업료 : 명세 체재비 : 본인부담	

※ 웹사이트 : MSU(www.msu.edu), SHSU(www.shsu.edu), NSU(www.northern.edu)

4. 학점인정 : 파견기간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수 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학과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며,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5. 전형방식 : 학부과정 성적평가가 50%·면접평가가 50%

6.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TOEFL 성적표 1부

7.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접수 : 2003. 4. 21(월) ~ 5. 14(수), 국제교류실
나. 면접 : 2003. 5. 16(금) 14:00 ~ , 국제교류실
다. 선정자 발표 : 2003. 5. 20(화) 이후 개별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제 41 회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 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 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4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 시 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6%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해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작품제출기간**
2003년 5월 5일 ~ 5월 24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신문사
-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lit.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2

매체비평

TV 편

내 인생의 공작지

“뮤지컬과 영상의 조화 입맛 버린 새 시도”



뮤지컬 형식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는 MBC드라마 '내 인생의 공작지'.

남녀의 우여곡절 청춘사를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공작지'는 뮤지컬을 드라마에 삽입 시켰다는 분명 새로운 시도는 보이지만,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별로 찾아보

기가 힘들었고, 오히려 드라마의 형식보다는 진부한 내용과 스토리 전개 때문에 작품의 새로움을 떨어뜨렸다.

이 드라마를 접하기 전에 뮤지컬 형식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의 드라마 속에서 연극 형식의 뮤지컬이 어떻게 접목 될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기대와 동시에, 어색함을 어떻게 달래면서 진행시켰을까 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뮤지컬이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고 뮤지컬 형식과 전혀 결맞지 않는 다른 기본적인 화면구성, 리듬, 템포, 진부한 내용 그리고 무리하게 뮤지컬과 코미디 두 가지를 다 접목시킨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역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뮤지컬을 드라마에 시도했다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제대로 된 뮤지컬 드라마를 만들지 못한 '입맛만 버린 새로운 시도'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행히 '내 인생의 공작지'는 박광현(경수역)이나 소유진(은영역)이 직접 시청자(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은 없었지만, 한 시간 방송에 한번만 나오는 뮤지컬은 제대로 된 음, 춤, 노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저 맛만 보여줘 시청자는 쓸쓸한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드라마를 성공적인 드라마라고 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드라마의 진부한 내용이 새로운 시도인 뮤지컬 방식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색을 바

라게 만든 것이다. 또한 드라마의 템포와 리듬 역시 전혀 살아있지 않다. 좋은 드라마는 보고 난 후 '저 드라마는 템포와 리듬이 좋아'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름방학' 편에서 분위기를 역지로 슬프게 잡아 나가다가 은영이 옛 애인의 죽음으로 '정말 슬프겠구나' 를 느낄 만한 시점에 은영이 자기 방 침대 위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뮤지컬드라마의 맛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후 장면들이 갑자기 코미디 형식으로 바뀌어 리듬과 템포가 단절돼 버렸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연출되어 배우들이 마치 남의 웃을 일

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뮤지컬과 음악으로 그나마 어렵게 잡은 분위기를 어슬프고 어울리지 않는 코미디로 넘어가 뮤지컬형식과 로맨틱 코미디 두 가지를 잡으려다 한 개도 제대로 잡지 못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보였다.

결국 '내 인생의 공작지'는 드라마에 뮤지컬 형식을 시도했다는 의미 이외에는 기존의 드라마와 별 다르게 없는, 아니 오히려 떨어지는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시대상과 문화적 정서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사회의 정체성을 조명해 본다는 제작의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안타까운 시도의 드라마인 것이다.

장지현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교수

꿈꾸는 당신 ... 해몽하는 문화

꿈은 무의식을 자유롭게 경험하는 과정 해석은 심리·문화적 측면에 따라 달라

사람이 잘 때 꿈을 꾸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생리적으로는 뇌파를 보면 깊은 잠(델타파)에서 얕은 잠(세타파나 베타파)으로 오는 시기에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소망을 위장하여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꿈에서는 사람의 무의식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재경험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아는 꿈에서조차 꿈을 검열하기 때문에 꿈은 위장이라는 과

정을 거쳐 나타난다. 위장되기 전의 꿈을 '잠재물'이라 부르고 꾸었다고 말하면 꿈을 '현재물'이라고 부른다.

꿈의 잠재적 의미

꿈의 해석이란 현재물에 나타난 잠재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꿈은 문법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 퍼즐같은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절이나 단어로 치환해야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분석가가 하는 일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에 대해 자유연상을 시키면서 퍼즐을 언어적인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잠재물이 현재물이 될 때는 압축, 전치, 표상 및 2차 수정의 네 가지 위장 과정을 거친다.

압축은 여러 가지 소망이나 좋아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왕이나 커다란 꿈, 또는 할아버지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전치는 잠재물이 해야 할 일을 현재물에서 바꾸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는 지팡이, 불펜, 우산, 첫

가락, 그야말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전치되어 나타날 수 있고 여자의 성기는 동굴, 향이리, 우물, 샘, 집, 찬장, 상자, 배 등으로 전치되어 나타날 수 있다.

표상은 시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긴 말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으로 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왕 옆에 신하가 앉아 있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내용이 표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수정이란 마음이 꿈의 내용을 정리, 수정, 보완하여 좀 더 수용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위장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꿈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꿈의 해석은 개인의 내적 무의식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히스테리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양의 꿈 해석 방법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방식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기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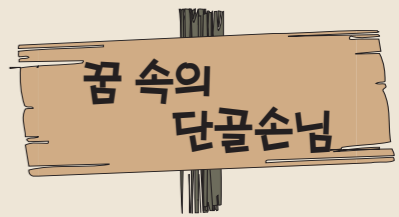
그렇지만 우리나라 식의 꿈 해석 방법도 상당히 심리치료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되면 조심하고 배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꿈을 꾸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꿈'이라고 무시해버리기도 해 꿈에 대해 매우 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꿈은 동서양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에 대한 해석이나 접근법이 다를 뿐이다.

하나의 현상을 놓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옳을지 한국적 꿈 해석이 옳을지는 아직도 확실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개 꿈도 잘 분석해 보면 용꿈이 될 수 있다.

이철원 아이맘 심리상담소 소장



동물

동물꿈은 등장한 동물과 꿈을 꾸는 사람과의 친밀도 및 전통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 돼지가 등장하는 꿈은 재물이 생기고 가정이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하는 최고의 길몽으로 꿈을 꾸는 소가 나오는 꿈 역시 집안이 평안하고 일이 잘 해결된다고 풀이할 수 있는 길몽이다.

한편 뱀에게 잡아 먹히는 꿈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남의 감언이설이나 협박에 넘어가 손해를 보게됨을 의미한다. 호랑이 등 포악한 동물에게 쫓기는 꿈 또한 애를 쓰고 있음에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죽음

죽음과 관련된 꿈은 성취욕과 관련해 길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죽거나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꿈은 가로막혔던 장애가 해소되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죽이는 꿈은 일을 성취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흉몽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돈

돈과 관련된 꿈은 흔히 재물과 관계지어 풀이한다. 많은 돈을 횡재하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을, 돈을 쓰는 꿈은 그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하지만 길에서 돈을 줌은 것처럼 적은 액수의 돈을 얻는 꿈은 일반적으로 흉몽을 의미한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병을 얻는 것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명인

대통령, 연예인 등 유명인을 만나는 꿈은 자기 욕구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유명인과 친하게 지내는 꿈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나 과시할만한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명인을 동경하는 꿈은 자신을 주변 사람과 비교해 패배의식을 느끼게 됨을 뜻한다.

한편 유명인에게 음식 등을 대접하는 꿈은 뒷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동국인의 꿈 이야기 - Dream & True

“진짜 흉몽이었지만...”



일반적으로 '흉몽'이라고 불리는 꿈을 꾸 후 다음날 연애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상희(불교대2) 군. 그는 얼마 전 경치 좋은 산에 눈이 내리는 꿈을 꾸다

고 한다. 좋은 경치에 눈, 처음에는 길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에서 눈이 오는 것은 흉몽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꿈이 현실에 반영된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나쁜 꿈이 실제 현실로 다가왔지만 꿈이 그 원인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군은 “나쁜 꿈을 꾸 후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맹목적으로 꿈을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꿈은 우리에게 작은 이정표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기분 좋으면 길몽 아닌가요?”



“좋은 꿈을 꾸면 안 풀리던 일도 순조롭게 이뤄져요” 어느날 하늘을 나는 꿈을 꾸 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났다는 김보경(반도체2) 양. 우리 주위에는 꿈

이 길몽인지 흉몽인지에 대해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녀는 특별히 꿈 풀이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이 꿈에서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면 실제로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꿈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꿈을 자주 꾸는 덕분에 주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꿈속에서 자주 만난다는 김 양은 학교에서 꿈에 나온 사람을 만나면 더욱 친근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꿈을 꾸 내가 기분 좋으면 길몽이지요”라는 그녀의 말처럼 우리의 실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꿈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꿈일 것이다.

“꿈은 단지 꿈일 뿐”



김민희(가교3) 양은 평소엔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닌데 지난 2월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새가 날아가는 꿈을 꾸 내내 신경이 쓰였다.

“미래를 예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해몽을 믿는 편이에요.” 책을 살펴본 그녀는 재물 운이 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복권을 샀지만 당첨은 되지 않았다.

“흉몽을 꾸면 생활에 조금 더 조심하고 길몽을 꾸면 평소보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라는 그의 말처럼 '개꿈'이든 길몽이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해몽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꿈은 이루어진다?

메아리

히스테리

▲“알았어. 하면 되잖아요!” 고3 수험생 시절 ‘놀이 말고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공부 안 하니?”라고 물으면 과도하게 ‘짜증 섞인 반항’을 해 본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히스테리는 이 같은 현상을 일컫는 의학용어다. 엄밀히 말하면 외부 요인에 비해 그 반응이 지나치리만큼 큰 것을 말한다. ‘시집’의 ‘시’ 자만 들어도 과도하게

화를 내는 반응. 소위 ‘노치너 히스테리’가 대표적이다. ▲정계가 ‘잡초론’으로 발각 뒤집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약 500만명의 네티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민은 농민의 마음으로 잡초를 뽑아야 한다”며 △집단지주의에 빠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 등 ‘잡초 정치인’을 골라내라고 역설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발언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일부 여야정치인들도 민주당 신당창당 논의를 염두에 둔 ‘고도의 책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는 ‘발언의 시점’과 맞물린 ‘의도’다. 민주당 내 신당창당 논의의 물살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계개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권력암투만 있을 뿐 정계개혁은 더디다”

는 비판, 즉 “구조적 변화 없이 일부 당권 주자들의 추상적인 외침만으로 정치개혁이 되느냐”는 비판을 들어온 터이다. ▲고3 수험생이 꼭 공부만 해야하는 것도, 20대 후반 여성이 모두 결혼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널리 퍼져있는 사회구조적 통념이 그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지역주의와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떤가. 지역주의로 동서가 갈라지고 이념공세로 대북 해법 합의가 표류한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정치인을 판단하는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교과서나 실릴 법한 당연한 이야기에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내는 이유, 겉으로만 대의를 따르고 있는 그들의 약점 때문일 지도 모른다. 송승경 사회부장 itsu@dongguk.edu